



[산업]
2018 파리모터쇼
현대차 i30N 신모델
기아차 '니로EV' 첫 선
05



신세계, 위례지역에 1500명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형 쇼핑몰 선보인다

스타필드시티 위례

입점 매장 40% 채용박람회 통해
점주·매니저 지역거주자 우선 채용

신세계그룹이 오는 12월 '스타필드시티(Starfield City) 위례'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쇼핑몰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오픈에 앞서 오는 5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스타필드시티 상생 채용박람회'를 하남시와 함께 개최하고, 지역 상생형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박람회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자주 등 신세계그룹 브랜드를 비롯해, 협력사인 비비안, 미니 골드, 샘소나이트 등 스타필드시티 위례에 입점할 총 47개사가 참여한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통해 약 15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례점을 지역 주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상생형 쇼핑몰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점 매장 중 상당 부분을 지역 점주나 지역 출신 매니저가 우선적으로 운영해 해,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쇼핑몰



로 만들 계획이다.

스타필드시티 위례 입점 매장의 약 40% 가량인 40여개 매장이 스타필드시티 상생 채용박람회를 통해 점주, 매니저, 스텝을 지역거주자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는 약 200여명 규모의 지역 주민 중심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업 부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기업별 인사, 채용담당자들이 상주하면서 채용관련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또,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한 취업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고, 메이크업, 이력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업체와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타필드시티 상생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상진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담당 상무는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지역민이 함께하고, 지역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쇼핑몰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상생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례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점주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매장 운영을 함께 하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양사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업그레이드형 이마트타운이다. 점포명도 기존 이마트타운과 차별화된 매장으로 선보인다는 목표에 따라, 위례 이마트타운의 공식 명칭을 '스타필드시티 위례'로 바꿨다.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15호점'을 포함해 'PK 마켓', '일렉트로마트', '부조', '몰리스페셜' 등 다양한 이마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패션과 식음을 중심으로 한 인라인몰(IN-LINE MALL)의 매장을 유치할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시월정동 축제 개최 “가배 마시러 오세요”

서울 정동서 대한제국 선포 기념 축제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정동 일대에서 '시월정동'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한제국 선포일(1897년 10월 12일)을 기념해 10월을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정동이 품은 대한제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 가치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축제는 정동일대 주민,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 20여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는 12~14일 덕수궁 정동공원에는 대한제국 시대의 정취에 혼연一体한 감성을 더한 팝업카페 '가배정동'이 문을 연다.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경다는 가배(커피의 옛 이름)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 모양의 와플을 맛볼 수 있다.

12일 야외 특별무대에는 선우정아, 스웨덴세탁소, 김나영, 홍대광등뮤지션들이 꾸미는 '시월정동의밤' 콘서트가 마련됐다.

가배정동이 열리는 3일간 '스탬프투어'도 운영된다. 덕수궁, 세실극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정동의 주요 스팟(총 13개)에서 스파要去으면 선착순으로 오얏꽃 디자인으로 특별 제작된 에코백과 수제캔들, 커피·와플 교환권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13~14일에는 전문 해설사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정동일대를 도보로 답사하는 '정동역사해설투어'가 준비됐다. 투어는 1일 2회씩 운영된다.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회당 30명씩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정동일대에서는 사회적경제 마켓, 콘서트, 환구대제 재현, 푸드트럭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세종즉위 600주년… 한글주간 행사 개최

서울시 '2018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서울시는 6~14일 세종즉위 600주년과 제572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공공언어 개선 전시회, 한글과 사회 변화 예민성을 반영한 차별적 언어 개선 학술 토론회, 시민과 함께 즐기는 한글 놀이터 등이 마련됐다.

6일에는 한글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



청 씨티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진행된다. 시에서 개선한 차별적 언어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문화재 안내판이 전시된다. 아울러 무르익는 남북 교류를 위한 디딤돌로써 남북 언어 차이를 알아보는 자리도 준비

됐다. 해당 전시는 국립국어원과 한글단체가 협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8일에는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차별적 언어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차별적 언어, 어디까지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열린다. 사회언어학자, 국어학자, 여성학자, 언론인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9일 한글날에는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 대왕 시민 꽃바치기 행사가 준비됐다. 한글날을 축하하는 깜짝 플래시몹은 흥대와 서울로 7017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통일의 염원을 담은 파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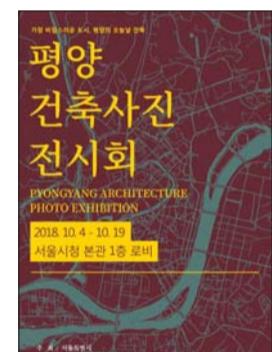
3일 오후 서울 구파발역에서 열린 2018 파발제에서 취타대와 파발마가 행진하고 있다. '파발(擺撥)'은 조선시대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군사 통신수단을 말한다. 조선시대 파발망은 은평구를 길목으로 삼아 황해, 평안도 등으로 이어졌다. 은평구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1996년부터 파발제 축제를 개최했다.

적인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건축 관련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평양의 건축물을 볼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간 건축 도시 분야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평양 건축 사진 전시회" 전시회는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 등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다"며 "평양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의 도시건축이 함께 발전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깊어진 가을 ‘남산옛길’ 따라 역사문화여행

중구 회현동 ‘세대공감 걷기여행’

서울 중구는 6일 오전 10시 회현동 행나무 쉼터에서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여행'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걷기축제는 회현동 걷기동아리주진위원회와 회현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순수 주민 주도 행사다.

행사 코스로는 은행나무 쉼터를 출발해 회현동주민센터, 성도교회 목양관, 정화예술대학, 회현어린이집, 삼풍아파트, 남촌놀이터를 거쳐 백범광장에 이르는 제1코스와 목멱산방을 주제한 제2코스가 있다.

도심에서 남산으로 통하는 남산옛길은 구가 주민과 조성한 골목길 코스다. 길 곳곳에 남산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트리아트, 벽화안내도, 주민녹화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도 마련됐다.

회현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코스를 전부 소화하면 은행나무 12정승 전설, 오성과 한음, 김유, 강세황 등 회현동에서 태어난 위인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가꾼 남산옛길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구 옛길 걷기여행 참가자 모습. /중구청

코스 중간에는 12정승 이름 맞추기, 회현동 퀴즈 풀기, 트리아트 포토존, 보물 찾기 등 체험부스도 준비됐다.

코스 종점인 백범광장에서는 가로·세로 각각 6m 도화지에 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열려라 남촌'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백범광장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회현별곡'을 즐길 수 있다.

우리동네 마당놀이를 테마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바우谗이 풍물단, 어쿠스틱 창작밴드 등의 공연을 포함, 가족영화 상영,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